

선학의 대가가 선사를 말하다

동국대 현각 스님 '한국을 빛낸 선사들'

자장 스님이 자장암에 있을 때였다. 공양을 짓기 위해 쌀을 씻으러 나갔던 스님은 샘에서 놀고 있던 개구리 한쌍을 보았다. 자장 스님은 개구리들을 샘에서 건져 근처 숲속으로 옮겨 놓았다. 이튿날도 스님은 개구리를 만났다. 스님은 부처님께 올릴 공양을 지을 물을 길는 신성한 곳이라는 생각에 다시 개구리를 옮겨 놓으려고 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개구리는 입과 눈가에 금띠가 있었다. 등에는 거북처럼 무늬도 있었다. 필시 부처님과 인연 있는 개구리라는 생각에 자장 스님은 더 이상 개구리를 닦하지 않았다. 겨울이 와도 개구리는 샘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 개구리를 위해 스님은 자장암 뒤 절벽에 손가락 만한 구멍을 뚫고 개구리를 넣어두었다.



통도사 자장암에 가면 지금도 금와보살을 만날 수 있다.

“죽지 말고 영원히 살면서 자장암을 지키거라.” 자장 스님은 개구리에게 수기(授記)를 내리고 이름을 금와(金蛙)라고 했다. 이후 대종스님들은 이 개구리를 금와보살이라 부르고, 바위구멍을 금와석굴이라 칭했다는 이야기이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현각 스님은 한국 선학의 대가이다. 스님은 신라 말엽에서 고려 초에 활동했던 스님들의 삶을 새롭게 조명해 <한국을 빛낸 선사들>(도서출판 한결음더 刊)을 펴냈다. 책은 일생을 한국 선학을 연구했던 학자로서 정년퇴임을 앞둔 스님이 그간의 연구를 회향하는 차원에서 정리한 것이다.

현각 스님은 “당시 스님들이 구법을 위해 중국·인도에 갔다고는 해도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구법승 자신의 공부 경지를 점검하고자 하는 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혹독하게 수행을 완성한 후에는 중국 불교계의 퇴락한 정신을 일깨운 선지식들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한 예로, 신라에서 태어나 16세의 어린 나이에 중국으로 건너간 혜초 스님은 “떠날 때는 100명이었으나 돌아온 자는 한 명도 없다”는 어려운 전축 여행길에 오른 인물이다. 혜초 스님은 낮은 이력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왕오천축국전>에 생생하게 기록함으로써 한민족의 혼을 만방에 유감없이 과시했다.

또, 진귀조사설(眞歸祖師說)로 유명한 범일 국사는 당나라 약산 스님으로부터 “대단히 기이구나. 대단히 기이구나. 밖에서 들어온 맑은 바람이 사람을 얼리는구나”라는 찬탄을 들었다. 성주산문을 개산한 무열 선사는 백낙천과 도반이었던 여만 스님으로부터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 봤으나 이와 같은 신라 사람은 드물었다. 훗날 중국에서 선이 실종될 때에는 장차 동이(東夷)에게 묻게 될 것이다”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이엄 선사는 중국에서 6년간 시봉한 도음 선사로부터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으니, 사람이 능히 도를 펼 수 있는 것이다. 동산(東山)의 선지가 타인에게 있지 않느니라. 법의 중흥을 오직 내가 너에게 주니, 나의 도는 동이(東夷)에 있다”는 말과 함께 심인(心印)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책은 이차돈 김대성 등도 한국불교의 근간을 이룬 수행자라는 관점에서 상세히 다뤘다. 이 책은 선사들의 행장을 통한 신심의 고양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사를 바로 알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데 손색이 없다. **한국을 빛낸 선사들 | 현각 스님 지음 | 한결음더 펴냄 | 1만3000원** 조동섭 기자

화장실서 휴지를 한쪽만 쓰는 이유는

日 다이닌 가타기리 선사의 대중강연 모음집

선불교의 '위대한 스승'으로 불리는 다이닌 가타기리 선사는 '나'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침묵하는 시간, 좌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쓸데없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지 못하고 끊임없이 말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속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느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타기리 선사는 스즈키 순류 선사와 함께 일본 선불교를 미국에 알린 1세대로 수백만 미국인들에게 선의 가르침을 전한 인물이다. <침묵으로 돌아가라>는 가타기리 선사의 대중 강연을 모은 것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하며 우리들에게 침묵으로 돌아가서 '나'를 발견하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일상생활 하나 하나
유심히 살펴보고
마음 기울여 행하라”

“다음에 공중화장실에 가게 되면 버려진 휴지가 담긴 휴지통을 주의해 보십시오. 거기 언제나 휴지의 한 구석 만이 사용된 채 버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휴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시콜콜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우 바쁘다면 물론 휴지를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해야 하지만, 여전히 휴지에 주의를 기울일 기회는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훌륭한 소품입니다.”(본문에서)

가타기리 선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침묵의 진정한 의미임을 강조한다. 화장실에서 휴지를 쓰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것, 매일 아침밥을 먹는 것 등. 가타기리 선사는 이러한 일상생활을 하찮게 여기는 우리에게 일상생활 하나 하나를 유심히 살펴보고 온 마음을 기울여 그것을 행하라고 말한다. 그는 삶의 의미와 참 '나'란 초월적이고 종교적인 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행동 하나하나와 그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으며 그것이 바로 선불교의 실정이라고 강조한다.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책에서 가타기리 선사는 침묵이란 무엇인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침묵을 실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리고 선불교의 핵심을 쉬운 구어체와 풍부한 일화로 전달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에게 삶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가타기리 선사는 1928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조동종의 승려가 된 후, 예코 하시모토 선사의 지도 아래 일본 조동종의 본산인 에이헤이지 선원에서 수행했다. 1963년 미국으로 건너가 여러 선원에서 활동했고 1969~1971년 샌프란시스코 선 센터에서 스즈키 순류 선사와 함께 미국 선문화의 기초를 닦았다. 1972년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미네소타 선 명상센터의 초대 원장이 된 가타기리 선사는 1990년 입적할 때까지 그곳을 활동의 중심지로 삼았다.

침묵으로 돌아가라 다이닌 가타기리 지음 | 이재희 옮김 | 사월의 책 펴냄 | 1만9000원 이나은 기자

영재는 사랑으로 자라 선승과 뇌과학자의 태교 대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가 바른 성품과 지혜를 가진 아이로 자라길 바랄 것이다. 그러한 아기의 능력은 유전자에 의해서만이 아닌 엄마의 배속 환경, 태어나서의 주변 환경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잘 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태교의 중요성이 강조돼왔다.

<뇌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태교 이야기>에서는 태교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생활전통이고 한국의 정신문화임을 강조한다. 카이스트 물리학 박사이자 뇌과학자인 김수용 교수는 그의 책에서 “(태교신기)는 동서양을 통틀어서 세계 최초로 태교에 관한 사항만을 집대성한 저술이며 이 분야의 걸작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뛰어난 저술 중 하나”라고 말한다.

책은 뇌과학자와 선승이 태교를 주제로 문답형식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다. 책에서 불교 선승자인 마하 스님은 김수용 교수에게 태교에 관한 화두를 끊임없이 던지고 김 교수는 태교에 관한 뇌과학적 성과를 설명한다. 책에서 스님과 뇌과학자는 “영재라고 해서 그저 머리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모든 덕성을 잘 갖춘 인격체가 영재”라고 입을 모은다. 그리고 그러한 인격체는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보다 높은 정신차원으로 형성됨을 강조하고 있다.

책은 태교가 과학적으로 아이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질의응답 식으로 정리해 독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더 나아가 태교를 왜 해야 하며,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원리와 해법을 제시했다.

뇌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태교 이야기 | 김수용 지음 | 종이거울 펴냄 | 1만3000원 이나은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5~6/2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감사하고 사랑하며	우학	좋은인연
2	기도	법륜	정도
3	사카무니 붓다	마성	대승바람
4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5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6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전영우	운주사
7	스님의 사춘기	명진	이슬
8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김승동	민족사
9	어떤 그리움으로 우린 다시 만날까 성진	마음의숲	
10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이진영	불광출판사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믿음은 한 자루 촛불과 같다”

진관 스님, 18번째 시집 '문수의 자화상' 출간



불교인권위원회 진관 스님이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을 추모하는 시집 <문수의 자화상>을 펴냈다. 책은 일제강점기를 한몸으로 보고 대저버를 실천했던 문수 스님의 가르침을 진관 스님의 감성으로 노래한 시들로 가득하다. 진관 스님은 책에서 “문수는 천하를 다 준다고 하여도 거부할 몸/ 문수는 인간 세상을 그림이라도 그리려고 그랬다/ 아무도 말을 할 수 없는 육신의 불꽃 그림/ 불꽃속으로 들어가려는 문을 가장 싫어했다/ 그래서 문수는 자연의 옷을 입고자 했다”고 노래했다. (<문수의 자화상> 중에서)

특히 소신공양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되겠다는 전설을 믿었다 믿음이란 한 자루 타는 촛불 같다/...오늘의 이 시대에 이자돈이 되었다”고 해 소신공양을 시적 언어로 풀고 문수 스님을 부처·보살로 승화시켰다.

문수의 자화상 | 진관 지음 | 한강 펴냄 | 9800원 조동섭 기자

명쾌한 깨달음

| 이대로 그대로 |

존재의 실상을 깨달아야 한다!

깨달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 깨달음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오는가?

연기법 수행과 선법 수행을 통해 존재의 실상을 깨달아가는 깨달음 공부의 입문서이자 결정판!
아주 간결하고 쉬운 언어로 명쾌하게 써내려간 깨달음 공부의 안내서!
누구나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도록 이끄는 책!

백창우 지 | 국민변형양장 | 316쪽 | 값 15,000원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우리 땅 곳곳에 자리한 절집 숲 24곳에 대한 답사기!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산림학자이자 숲 해설가인 전영우 교수와 함께하는 절집 숲 이야기!

절집 숲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생태적 문화유산이자 선조들이 우리 후손에게 물려준 매력적인 선물이다.

경쟁과 속도에 지친 현대인에게 마음의 풍요와 안식을 제공하는 절집 숲,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향유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경관이자 아름다운 자연유산, 220여 컷의 풍광 사진과 인문학적 깊이가 있는 글은 독자로 하여금 절집 숲의 정취에 흠뻑 빠져들게 할 것이다.

전영우 지 | 사록배판 변형 | 컬러 | 396쪽 | 값 23,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